

#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인식 연구

## Recognition Research on the Field Placement Activation Plan on Demand of Gwangyang Bay Area Industry

이재환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처

Jae-Hwan Lee(jhlee@suncheon.ac.kr)

### 요약

본 연구는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Q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산업체 종사자, 산업체 연수생, 현장실습 담당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현장실습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하고,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도출된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산학협력형(제1유형), 수요분석형(제2유형), 현장중심교육형(제3유형) 등 3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과 산업체 상호간 긍정적인 산학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지역 산업동향 및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인력 양성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산업체 현장직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 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중심어 : | 광양만권 | 현장실습 | 인식연구 | Q방법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nd needs of interested group on the Field Placement on Demand of Gwangyang Bay Area Industry by Q methodology, then to search for political measures to improve Field Placement in the implication of the sorted subjective perception type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sorts of subjectivities on the Field Placement Activation Plan on Demand of Gwangyang Bay Area Industry: emphasizes industry-college cooperation(Type1), emphasizes industry demand analysis(Type2), emphasizes field-centered education(Type3). And a new study showed that results can improve Field Placement on Demand of Gwangyang Bay Area Industry: positive industry-college partnership building, manpower training total support system building by manpower demand analysis and the situation of local industry,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training on demand of local industry on-the-job, transition into field-centered education system by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 keyword : | Gwangyang Bay Area | Field Placement | Recognition Research | Q methodology |

\* 본 연구는 2014년도 순천제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과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5년 06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3일

교신저자 : 이재환, e-mail : jhlee@suncheon.ac.kr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현장과 괴리된 인력을 양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산업체와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산학협력교육의 대표적인 예가 산업체 현장실습이다.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산업체에서의 실습교육의 융합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은 대학과 학생, 산업체 간 상호 이익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1].

이러한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론교육과 관련된 현장 실무 능력의 효과적인 배양을 위해 대학이 소개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고용률 제고와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의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와 함께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2]. 이 가운데 단연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창출,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현안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대학의 교육 운영의 방향을 국가산업이나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유도하였고, 대학은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현장실습을 매개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체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환경 변화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은 전남 동부권인 광양만권역에 인접하고 있는 공업계열 중심의 대학으로,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광양만권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인 산업체 현장실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은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과 연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내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결과, 현장실습 연계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28.5% 향상된 42.5%로 나타났고[3], 이는 현장실습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역 산업체와의 형식적인 현장실습 연계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유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취업과정에서 지역 산업체와 졸업생 간 지속적인 구인-구직자 미스매치(mismatch) 등과 같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3][4].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대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지역 산업체 수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매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 유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광양만권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갖는 주관적인 태도, 가치 등을 객관화 할 수 있는 Q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Q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Q를 활

1 대학진학률('14년 기준): 한국 69%, OECD평균 58%(OECD 교육지표)

용한 연구는 질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주관성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체 현장실습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질적·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다[5-7].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양만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자 소속 대학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실습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모아 보다 실질적인 대학 차원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첫째, 광양만권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은 현장실습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이들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 II. 선행연구 검토

### 1. 현장실습의 개념과 효과

현장실습은 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의 직업에 원활히 적용하도록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직무분야에 참여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게 하는 교육제도로서[8-10],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기술의 심화, 직업정신의 함양, 산업체 기술 습득 등을 통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11].

또한 현장실습은 “기대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적인 작업 현장에서 경험을 습득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12], 일중심 학습의 개념을 일종의 작업 환경 또는 모의 작업 환경에 기초

하거나, 또는 그 환경 속에서의 학습 경험과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데[13], 이는 전통적 실습 제도인 도제제도, 인턴제도, 산학협동, OJT, 직업아카데미, 학교중심기업, 직업 기술 실습실, 직업 시뮬레이션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4].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한 사전 수요분석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지역 산업체 수요에 기반 한 현장실습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 인구의 급감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입학자원의 기초학습능력 저하 및 개인차의 심화, 그리고 대학수학 능력의 한계 및 학과 적응력 부족 등으로 교육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은 산업체 맞춤형 교육 등 현장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 제고 등 대학의 교육운영 시스템을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 운영에 있어서 산업체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과 산업체, 학생에게 현장실습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16].

표 1. 산업체 현장실습의 효과

대학	산업체	학생
-현장 감각을 갖춘 유능한 실무형 인재 배출 -교육프로그램의 불일치 해소	-우수인재 조기 발굴 및 검증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절감 -직원이 대학 강단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경험 전수	-현장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진로탐색(취업진로결정에 효과적) -취업에 유리한 경험 축적(직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직장 생활 관련 소양향상) -전공학점 취득과 학비 확보

### 2. 현장실습 관련 선행연구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현장 맞춤형 교육운영의 한계,

현장 맞춤형 교육운영의 성과창출의 한계,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장 맞춤형 교육운영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학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산업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 부분 대학교육과 현장과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이론과 실습시간의 비율에 있어 여전히 이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거나, 학교와 산업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를 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거나[17-25], 실습시간이나 학점의 다양성, 그리고 산업체와 교육계의 의견 불일치, 대학 차원에서의 학생 교육 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나 봉사정신, 책임감, 자긍심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장실습과 직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현장실습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6-28]. 또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직업기초능력 즉,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31].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운영 성과창출에 있어서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학생 희망진로에 맞는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업무능력을 고려한 현장실습 업무배치 등을 실습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32]. 이 밖에도 학과별 지도 학생 현장실습 산업체 순회방문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학생 및 산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에의 한계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산업체 수요와 대학 차원의 공급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나,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의 부재에서도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24][33-35].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 및 산업체 만족도 조사에서 대학 차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에의 불만족 사례가 나타났으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연구 사례도 있으며[32],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실습비 지원이나 실습기간, 실습시기, 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22-24][35-40].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최근에 실시한 광양만권역 내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결과보고서[3]를 통해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역 산업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이 대학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장 맞춤형 교육운영의 성과창출의 한계, 즉 낮은 취업률, 학생들의 희망진로에 맞는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의 부적절성, 비효율적인 대학의 산업체 순회방문지도 등으로 인해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인력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의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접근한 방법이 대부분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과 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과 양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대학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현장실습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현장실습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인식,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Q방법을 활용하여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5][6].

### III. 연구방법

#### 1. 표집방법

##### 1.1 Q모집단 표집

Q모집단 표집을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으며, 문헌조사에서는 현장실습, 산학협력, 산학협동, 산업체 연계 취업 등과 관련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한 Q모집단 표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을 위한 대상 선정은 톰슨(Thompson, 1966)의 스키마타(Schemata)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41]. Q를 활용한 연구는 사람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람과 그들이 갖는 의견으로부터 출발한다[5][6]. 이러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성을 찾기 위한 168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 1.2 Q표본 선정

Q표본 선정은 확보된 168개의 Q모집단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운영 체계, 학생역량, 교수자 역량, 현장실습 체계 등으로 범주화하여 91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고, 그 다음으로 확보된 진술문 가운데 중복적인 문장, 의미가 동일하지만 상반된 표현을 담고 있는 문장 등을 정리하여 46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진술문을 수정·보완한 후, 산학협력 관련 실무전문가(3명)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34개의 Q표본을 표집하였다.

##### 1.3 P표본 선정

Q유형화는 톰슨(Thompson)이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16명의 P표본을 추출하였는데, 이는 추출될 요인의 수를 고려한 것으로, 최근 Q를 활용한 연구에서의 Q요인의 수와 P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므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의 P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들을 대상으로 Q분류를 진행하였으며, Q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 간 특성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충분하다[6].

##### 1.4 Q표본의 분류

Q표본 분류는 연구 참여자에게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와 관련한 진술문이 기록된 카드를 배부하고, 아래에 제시된 분류표에 주관적 의견(강한 동의, 중립, 강한 비동의)을 분류함으로써 이루어지며, Q표본 분포는 강제분류 방식에 따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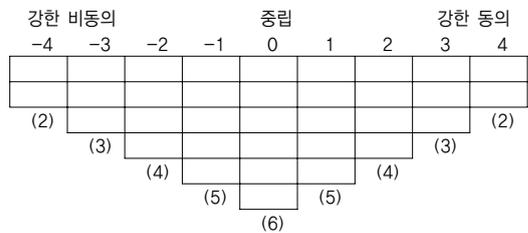


그림 1. Q표본 분류지(N=34)

####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Q표본은 PQMethod 2.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처리하였고, 센트로이드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5차례에 걸친 판단적 회전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각 진술문에 대한 양극단 요인가 및 표준점수(Z-Scores)가 ±1.0 이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양극단 진술문 분류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Q요인분석

요인분석을 통한 유형화는 각 요인별 표준점수가 ±1.0 이상인 항목과 다른 요인들과 구별되는 각 요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각 요

인별 양극단 진술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업체 현장실습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3개의 Q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Q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 간 상관관계 계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각 요인이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표 2.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점수	요인점수(Factor Scores)		
	1	2	3
1	1.0000	0.1986	0.0862
2	0.1986	1.0000	0.3448
3	0.0862	0.3448	1.0000

Q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법론에서의 요인분석과는 달리 요인을 추출해 내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상관관계 계수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다[5].

표 3. 요인별 특성

구분	요인(Factors)		
	1	2	3
No. of Definig Variablkes	5	4	3
Average Rel. Coef.	0.800	0.800	0.800
Composite Reliability	0.952	0.941	0.923
S.E. of Factor Scores	0.218	0.243	0.277

각 진술문에 대한 요인별 특성 및 요인가는 [표 3], [표 4]와 같으며, 요인분석 결과 최초의 요인별 설명변량(48%)보다 5회에 걸친 판단적 회전 이후의 설명변량이 3% 늘어나 3개의 Q요인이 34개의 Q소트 총 변량 중 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4. 각 진술문에 대한 요인가

번호	진술문(Q-Statements)	요인배열 (Factor Arrays)		
		1	2	3
01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산업체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0	0	0
02	교원임용이나 평가제도 등이 산학중심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2	-3	-3
03	대학 입학시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1	0	-4
04	대학 전공 교과과정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가 요구된다.	3	2	2
05	대학과 산업체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2	2
06	대학은 가족회사와 다양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현장실습, 인턴십, 산학인력교류, 산업체 기부장학금 등과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4	3	1
07	대학은 입학 초기부터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학-학생-산업체간 3자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4	-4	-2
08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한 원스톱(one-stop) 종합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3	4	-1
09	대학은 학생들에게 현장견학 및 신기술에 대한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1	0
10	대학의 실험실습 인프라가 현장기술 이해에 턱없이 부족하다.	-2	-2	4
11	산업체 현장실습 후 곧바로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학생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1	2
12	산업체는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0	0	4
13	산업체에 즉시 투입가능한 현장 실무교육이 부족하다.	-1	1	3
14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생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2	-1	0
15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현장에서 교육시켜야 한다.	1	-2	-3
16	산업체와 연계한 가족회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2	0	-1
17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1	1
18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교수 인력풀을 갖추어야 한다.	1	1	-3
19	산학협력협의회를 통한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0	0	2
20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0	2	0
21	잘 훈련된 인재가 배출되면 기업이 알아서 찾아온다.	-2	-1	-1
22	정기적인 지역 산업 및 인력수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0	4	3
23	지역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수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1	1
24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	-1	-1	3
25	지역 산업체와 관련한 직업적응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2	1
26	지역 산업체의 현장직무와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	-3	1
27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체로의 현장실습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3	-1
28	학생들은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1	3	0
29	학생들은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4	0	-2
30	학생들은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0	-2	0
31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	-2	-2
32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의 정기적인 산업체 순회방문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3	-2
33	학생의 적극성과 산업현장에서의 친화력이 부족하다.	-3	1	-1
34	현장실습 이수 인증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1	-4	-4

표 5. P표본의 요인행렬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구분	요인(Factors)			배경변인				
	1	2	3	구분	성별	연령	경력	거주 지역
P01	0.8520*	0.0625	-0.1080	산업체종사자	남자	58	33년	순천
P03	-0.0490	0.1264	0.5206*	산업체종사자	남자	36	9년4월	여수
P04	0.5913*	0.3129	-0.1458	대학교수	남자	55	26년	순천
P06	0.1117	0.6816*	0.0676	대학교수	남자	50	20년	순천
P07	0.3249	0.0119	0.7041*	대학직원	남자	26	3년	순천
P08	0.2993	0.7184*	0.3126	대학직원	남자	51	15년9월	순천
P09	0.2683	0.3779*	0.0518	대학직원	여자	40	21년	순천
P10	-0.0686	0.2199	0.4547*	대학직원	여자	21	1년5월	광양
P12	0.3868*	0.0300	0.2912	산업체연수생	남자	23	3월	여수
P13	0.5119*	0.0419	-0.0440	산업체연수생	남자	23	3월	여수
P14	0.2090	-0.3370*	-0.0542	산업체연수생	남자	24	-	순천
P15	0.7740*	-0.2072	-0.3449	산업체연수생	남자	25	2년	여수
Eigen Values	2.8257	2.1255	1.4139					
% expl. Var.	21	16	11	최초 요인별 설명변량				
cum %expl. Var.	21	17	13	평단적 회전(5회) 이후의 설명변량				
	21	38	51	최초 설명변량(48%)의 적재치와 비교할 때, 3%의 설명력을 더 가짐.				

도출된 3개의 유형에서 비슷한 점수를 얻은 항목을 나타내는 합의 항목(consensus statements)은 모두 10개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의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6. 모든 유형에 일치하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No.	Q-statements	Factors					
		1		2		3	
		Q-SV	Z-SC R	Q-SV	Z-SC R	Q-SV	Z-SC R
1*	교수자 대상 산업체 연수프로그램 부족	0	0.09	0	-0.23	0	0.06
2*	비산학중심형 교원임용평가제도	-2	-1.16	-3	-1.24	-3	-1.49
4*	대학 전공과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	3	1.34	2	1.01	2	1.13
5*	긍정적인 산학 관계 형성	2	0.83	2	1.05	2	0.66
11	현장실습 연계 취업	3	1.26	1	0.53	2	1.10
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	2	1.10	1	0.39	1	0.55
20*	대학의 재정 확보	0	0.15	2	0.68	0	0.10
21*	인재배출로 기업자발성 유도	-2	-0.73	-1	-0.30	-1	-0.35
25	사전 직업적응훈련	1	0.31	2	0.93	1	0.11
31*	학생역량에 맞는 눈높이교육	-1	-0.52	-2	-0.90	-2	-0.58

이와 같이 여러 진술문 가운데 모든 유형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합의 항목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변인을 의미한다. 즉, 모든 유형에 일치하는 진술문은 유의도(p) 0.05 수준에서 10개의 진술문이 발견되었으며, 3개의 요인에 걸쳐 나타난 어떠한 2개의 표준점수의 차이가 1.00을 넘지 않는 항목이 모두 10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인식유형별 특성

### 2.1 산학협력형(Industry-College Cooperation)

표 7. 제1유형과 관련된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07. 대학-학생-산업체 3자 협약	1.511
	06. 대학-가족회사 간 연계지원	1.446
	08. 산학연계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	1.372
	04. 대학 전공과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	1.344
	11. 현장실습 연계 취업	1.260
	16. 가족회사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1.133
	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	1.102
비동의	23. 산업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수준	-1.036
	02. 비산학중심형 교원임용평가제도	-1.155
	27. 취업 희망 산업체 현장실습 미연계	-1.179
	26. 산업체 현장직무와 동떨어진 교육	-1.347
	33. 학생의 적극성인식 부족	-1.463
	32. 지도교수의 산업체 순회방문지도 부족	-2.037
	29. 학생들의 의지 부족	-2.037

산학협력형(제1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은 Q6, Q7(4), Q29, Q32(-4)로 나타났으며, 34개의 Q진술문 가운데 제1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01, P04, P12, P13, P15이며, 해당 P표본이 양극단 진술문(±4)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을 학점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산업체 역시 일회성으로 실습을 하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학생)과 산업체 상호 간에 꾸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1)

“산업체에 대한 사전이해 없이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산업체-학생 간 매칭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P12)

“실습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학생·기업 상호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학교 교육과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기술 등 일부는 배우지만, 나머지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워 익혀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P13)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을 느껴보는 것이 학생과 산업체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15)

“지역 산업체의 현장직무와 완전히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일부 진공분야가 지역 산업체 직무와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P4)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체가 학생을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 스스로가 산업체를 찾아 나서야 하고, 어느 정도 지역 산업체 직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P13)

도출된 진술문을 통해 제1유형은 대학과 산업체간에 기술개발·지도, 공동연구 등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제1유형은 긍정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학협력형”으로 명명하였다. 34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1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표 8. 제1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No.	Q-statements	Factors					
		1		2		3	
		Q-SV	Z-SC R	Q-SV	Z-SC R	Q-SV	Z-SC R
7	대학-학생-산업체 3자 협약	4	1.51	-4	-2.45	-2	-1.08
16	가족회사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2	1.13	0	-0.08	-1	-0.43
14	산업체 요구 수준 학생투입	2	0.98	-1	-0.36	0	-0.02
15	산업체 현장 중심 교육	1	0.53	-2	-1.01	-3	-1.33
22	정기적인 지역 산업·인력수요 분석	0	-0.03	4	1.94	3	1.58
34	현장실습이수인증제 도입	-1	-0.04	-4	-1.69	-4	-1.67
13	즉시 투입가능한 현장 실무교육의 부족	-1	-0.43	1	0.42	3	1.15
33	학생의 적극성·친화력 부족	-3	-1.46	1	0.56	-1	-0.43
32	지도교수의 산업체 순회방문지도 부족	-4	-2.04	-3	-1.09	-2	-0.85
29	학생들의 의지 부족	-4	-2.04	0	0.23	-2	-0.55

### 2.2 수요분석형(Industry Demand Analysis)

수요분석형(제2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은 Q8, Q22(4), Q7, Q34(-4)로 나타났으며, 34개의 Q진술문 가운데 제2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06, P08, P09, P14이다.

표 9. 제2유형과 관련된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22. 정기적인 지역 산업·인력수요 분석	1.939
	08. 산학연계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	1.713
	27. 취업 희망 산업체 현장실습 미연계	1.362
	06. 대학-가족회사 간 연계지원	1.140
	28.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	1.068
	05. 긍정적인 산학 관계 형성	1.050
	04. 대학 전공과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	1.008
	15. 산업체 현장 중심 교육	-1.014
비동의	26. 산업체 현장직무와 동떨어진 교육	-1.064
	32. 지도교수의 산업체 순회방문지도 부족	-1.088
	02. 비산학중심형 교원임용평가제도	-1.244
	34. 현장실습이수인증제 도입	-1.694
	07. 대학-학생-산업체 3자 협약	-2.452

제2유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양극단 진술문(±4)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기업이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다고 본다. 미스매칭의 원인도 결국 학생 스스로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P6)

“지역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대학의 입학에서 취업과 취업 후 활동까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P8)

“광양만권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한 원스톱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후 곧바로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학생 연계가 이루어지면, 양질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학생과 산업체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P9)

“현장실습 기간이 끝나면 12월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12월이면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끝나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만 쌓일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과 바로 연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P14)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된 원스톱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P9)

도출된 진술문을 통해 제2유형은 정기적인 지역 산업 동향 및 인력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연계를 통한 윈스톱 종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대학 입학 초기부터 산·학·관 3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현장실습 이수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제2유형은 대학과 산업체간 연계를 통한 윈스톱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산업동향 및 인력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분석형”으로 명명하였다. 34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2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표 10. 제2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No.	Q-statements	Factors					
		1		2		3	
		Q-SV	Z-SC R	Q-SV	Z-SC R	Q-SV	Z-SC R
27	취업 희망 산업체 현장실습 연계	-3	-1.18	3	1.36	-1	-0.50
28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	-1	-0.37	3	1.07	0	-0.29
33	학생의 적극성·진취력 부족	-3	-1.46	1	0.56	-1	-0.43
13	즉시 투입가능한 현장 실무교육의 부족	-1	-0.43	1	0.42	3	1.15
29	학생들의 의지 부족	-4	-2.04	0	0.23	-2	-0.55
30	학생들의 현장 업무처리 능력 부족	0	0.19	-2	-0.90	0	-0.17
7	대학-학생-산업체 3자 협약	4	1.51	-4	-2.45	-2	-1.08

2.3 현장중심교육형(Field-Centered Education)

현장중심교육형(제3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은 Q10, Q12(4), Q3, Q34(-4)로 나타났으며, 34개의 Q진술문 가운데 제3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03, P07, P10이다.

표 11. 제3유형과 관련된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12.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 필요	2.122
	10. 대학의 실험실습 인프라 부족	1.711
	22. 정기적인 지역 산업인력수요 분석	1.575
	24. 학생들의 산업체 직무 이해 부족	1.269
	13. 즉시 투입가능한 현장 실무교육의 부족	1.149
	04. 대학 전공과 지역 산업 연계 특성화	1.133
	11. 현장실습 연계 취업	1.101
비동의	07. 대학-학생-산업체 3자 협약	-1.084
	18. 산학협력 전담교수 인력풀 구축	-1.230
	15. 산업체 현장 중심 교육	-1.334
	02. 비산학중심형 교원임용평가제도	-1.495
	34. 현장실습이수인증제 도입	-1.672
	03. 대학 입학시 우수한 인재 선발	-1.930

제3유형에서 연구 참여자인 P표본이 양극단 진술문(±4)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론과 실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교육이 현장에 대한 이해보다 이론 중심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P3)

“장기근속을 하지 않는 직원이 많을수록 재교육 등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대학 차원에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력 창출이 필요하다.”(P7)

“산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학생을 선호하며, 현장에 즉시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P10)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전에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여도 향후 2~3년 후에 본인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P3)

“우수한 인재 선발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 배출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산업체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P7)

“우수 인재가 아니더라도 산업체에서는 실무에 강한 인재를 선호하므로 실무중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진술문을 통해 제3유형은 산업체에서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현장기술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 이수 인증제 도입과 입학 시, 우수인재 선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제3유형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산업체 현장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중심교육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34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3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표 12. 제3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No.	Q-statements	Factors					
		1		2		3	
		Q-SV	Z-SC R	Q-SV	Z-SC R	Q-SV	Z-SC R
12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 필요	0	0.20	0	-0.25	4	2.12
10	대학의 실습실습 인프라 부족	-2	-0.90	-2	-0.87	4	1.71
24	학생들의 산업체 직무 이해 부족	-1	-0.39	-1	-0.26	3	1.27
13	즉시 투입가능한 현장 실무교육의 부족	-1	-0.43	1	0.42	3	1.15
23	산업체 중사(차)의 열악한 처우수준	-2	-1.04	-1	-0.44	1	0.57
26	산업체 현장직무와 동떨어진 교육	-3	-1.35	-3	-1.06	1	0.26
6	대학-가족회사 간 연계지원	4	1.45	3	1.14	1	0.16
33	학생의 적극성진화력 부족	-3	-1.46	1	0.56	-1	-0.43
8	산학연계 윈스톱 종합지원 시스템	3	1.37	4	1.71	-1	-0.51
29	학생들의 의지 부족	-4	-2.04	0	0.23	-2	-0.55
7	대학-학생-산업체 3자 협약	4	1.51	-4	-2.45	-2	-1.08
18	산학협력 전담교수 인력풀 구축	1	0.57	1	0.63	-3	-1.23
3	대학 입학시 우수한 인재 선발	1	0.33	0	-0.07	-4	-1.93

##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대학-산업체-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유형별 논의과정을 통해 현행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1유형(산학협력형)의 특성에서와 같이 광양만권역 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산업체 상호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 내 전공분야별 가족회사 발굴·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산업체 연계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나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현장견학을 통한 지역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며,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활동이 양자 간 공식적인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산업체에 대해서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기본적으로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대학과 산업체, 학생 간 관계·역할 등을 보다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유형(수요분석형)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지역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지역 산업체 여건에 따른 인력수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과 산업체가 공식적·정기적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윈스톱(one-stop)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의 중심이 되는 단일 창구(manpower training hub)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장실습의 자립적 운영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역 산업동향 및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인력양성 종합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실습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양만권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을 취업약정형 혹은 취업맞춤형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모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3유형(현장중심교육형)의 특성을 통해 지역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현장 중심의 실

기·실습 교육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 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수행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영국의 샌드위치제도와 같이 전문화된 직업교육과 훈련으로 산업계 요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코스를 정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학에서는 지역 산업체 현장직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시스템 즉,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독립된 조직체제인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기능을 실습지원 및 운영에 관한 통합적 지원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한 현장중심의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지역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현장직무수행 능력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학, 학생과 산업체 모두가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가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한 현장중심의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의 교수인력풀을 지역 산업체 현장직무와 관련된 인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수인력에 대한 산업체 정기연수 및 교원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을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대학 체계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전략 수립·시행을 통해 현장실습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산업체 및 산업체 연수생(학생)들의 의견 수렴 결과에서와 같이 산업체 연수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후,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산업체로의 실습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성공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학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교수 및 지원인력의 관심과 정기적인 순회방문지도, 그리고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는 대학의 교육 운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현장실습 운영과 산업체 연수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은 전공 관련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산업체는 사전 검증된 인력 및 맞춤형 인재의 확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실습에 관한 대학과 산업체의 인식 또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산업체 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Q방법을 활용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적 인식, 태도 등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제한된 수의 P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식유형을 실제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Q블록을 활용한 양적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질적 접근을 통한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연구결과를 보다 더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출된 인식유형의 특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더 학문적·정책적·실천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광양만권 산업체 현장실습을 다루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산업체 현장실습을 특성화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 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연구재단, 장기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5.
- [2] 고용노동부, 2015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2014.
-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14 지역 대학생 입주 기업 체험학습 지원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2015.
- [4] 양정승, 황승수, 류지영,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5] 김홍규,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08.
- [6] 이재환, 성혁제,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197-210, 2015.
- [7] 이재환,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172-184, 2014.
- [8] 박철우, 이지옥, 박상철, 최영섭, 이종향, 벌거벗은 공학교육과 산학협력, 푸른사상, 2008.
- [9] 오창현, “장기현장실습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IPP 전담교수의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공학교육논문지, 제5권, 제2호, pp.129-137, 2013.
- [10] 김향아, 국내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실태와 개선 과제: 대졸 인턴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3.
- [11] R. Z. Waryszak, “Students’ expectation from their cooperative education placement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Vol.41, No.1, pp.33-40, 1999.
- [12] R. Mason, L. Furtado, and S. Husted, Cooperative occupational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in the curriculum, The Interstate Printers & Publishers Inc, 1986.
- [13] J. L. Hoerner and J. B. Wehrley, “Work-based learning; the key to school-to-worktransition,” Glencoe, NY: McGraw-hill, pp.10-14, 1995.
- [14] 강중훈, 김영상, 정향진,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 [15] 이우영, 조세형, 설진수, 손덕수, “대학 교육에서 강화된 장기현장실습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p.99-107, 2012.
- [16] 안재영, 이병욱,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실습 효과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38권, 제1호, pp.145-161, 2013.
- [17] 정주연, 장수명, 최영섭,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구조와 성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06-17-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18] 최귀덕, 전문대학 관광현장 실습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19] 강다원, “관광관련 부문의 산학협동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대학논문집, 제6권, pp.437-455, 2000.
- [20] 김근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현장실습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pp.75-90, 2006.
- [21] 성환경, 김원태, “치기공과의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제19권, 제1호, pp.21-34, 2001.
- [22] 한화정, 호텔관광경영 산학협동에 대한 만족도 및 실험실습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윤주리, 컨벤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방안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4] 김덕환, 호텔 양식단의 조리관련 학과 학생대상 산학 실습 중요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5] 서강태, 대학생들의 산학실습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6] R. K. Wagner and R. J. Sternberg, "Practical intelligence in real-world pursuits: The role of tacit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79, 1985.

[27] J. F. Downey and Deveau, "Coordinating the hospitality internship," *Cornell H. R. A. Quarterly*, Vol.26, 1987.

[28] M. B. Loftus, "Internship in Embassy Suites Hotels," *Toronto Semina Canada*, pp.48-51, 1988.

[29] M. S. Taylor, "Effects of college internship on individual participa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234, 1988.

[30] T. C. Barrett and H. E. Tinsely, "Vocational self-concept crytallization &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124, 1990.

[31] Department of Labor, *Traing America*, pp.29-32, 1998.

[32] 최원근, *대학 관광교육이 산학협동실습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3] 이종순, *관광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동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34] 전용진, "현장실습이 취업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 논문집*, pp.334-337, 2005.

[35] 김문락, *산학협동현장 실습생들의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6] 박정민, 이규식, "현장실습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경북전문대학논문집*, 제25권, pp.73-94, 2007.

[37] 이문구, "효율적인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연구," *전자공학회논문지*, 제48권, 제3호, pp.167-173, 2011.

[38] 나정기, "산학 실습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경기관광연구*, 제3권, pp.31-49, 1999.

[39] 석윤희, *호텔산학협동 현장실습생의 기대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0] 조영립, *산학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1] G. C. Thompson,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and M. Janowitz(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1966.

저 자 소 개

이 재 환(Jae-Hwan Lee)

정희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2011년 2월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처 산학협력정책부장
- 2015년 4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취업지원센터장

<관심분야> : 노인 및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인력양성, 산학협력, 현장실습, 취업지원 분야